

가상현실 노하우 로봇에 심는다… 게임업계 피지컬AI 주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 구성해
월드·로보틱스 파운데이션 연구
업계 첫 산업용 AI 인프라 개발

크래프톤, ‘루도 로보틱스’ 출원
SKT 컨소시엄 핵심멤버로 참여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정부 주도 피지컬 AI 국가과제에 참여하며 산업용 로봇 ‘두뇌’ 기술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생성형 AI 경쟁이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AI를 의미한다. 게임사가 축적해 온 가상 환경 설계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는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은 정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연계해 피지컬 AI 연구에 참여한다. 단순 게임 내 NPC 고도화를 넘어 제조·로보틱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엔씨소프트의 AI 전문 법인 NC AI는

NC AI K-피지컬 AI 얼라이언스



NC AI K-피지컬AI 얼라이언스 컨소시엄.

/NC AI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피지컬 AI 모델 학습을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개발’ 과제에 ‘K-피지컬 AI 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해당 과제는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WFM’과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RFM’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 기술은 ‘월드 모델’이다. 현실의 물리 법칙과 환경을 가상 공간에 정교하게 구현해 AI가 수만 번 이상의 시행착

오를 거치며 스스로 최적 행동을 학습하는 구조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 실험을 수행하는 대신, 가상 환경에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임 산업이 보유한 물리엔진, 충돌 계산, 공간 인식,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엔씨 측은 데이터 확보부터 모델 설계, 로봇 적용까지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구축하는 ‘소버린 AI’ 체계를 지향한다

는 구상이다. 외산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제가 국내 게임사가 산업용 AI 핵심 인프라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한다.

크래프톤 역시 로보틱스 AI 확장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루도 로보틱스(Ludo Robotics)’라는 신규 상표권을 출원했다. 지정 상품에는 공업용 로봇,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공학 관련 공학서비스, 웹 기반 AI 서비스, AI 기술 상담업 등이 포함됐다.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사업화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지난해 4월 미국의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엔비디아는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기업이다. 게임 엔진 기반 가상 환경과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션 기술이 결합할 경우 산업용 피지컬 AI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

기된다.

아울러 크래프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SK텔레콤 컨소시엄 핵심 멤버로 참여해 모델 ‘A.X.K1’ 고도화를 진행한다. 정부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향후 피지컬 AI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해당 연구 성과가 로보틱스 AI 개발과 맞물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향후 제조, 물류, 반도체, 공항 운영 등 산업 전반의 자동화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본다. 글로벌 빅테크가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게임사가 국가 과제와 연계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데이터와 모델 규모 경쟁이었다면, 피지컬 AI는 공간 이해와 시뮬레이션 정밀도가 핵심”이라며 “가상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 온 산업이 게임인 만큼, 이번 도전이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LG U+, ‘MWC26’서 국내 AI 스타트업 10곳 소개한다

MWC 부대행사 4YFN 참가
글로벌 기업·투자사 미팅 통해
기술협력·사업 연계 가능성 논의

LG유플러스가 다음 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AI 스타트업 10개사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10개 AI 스타트업은 MWC 부대행사로 열리는 4YFN(4 Years From Now)에 참가한다. 4YFN은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



LG유플러스가 다음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26’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AI 스타트업 10개사를 전세계에 소개한다. (왼쪽부터)케빈 하 사이퍼데이터 대표, 이승현 인헨스 대표, 장인선 페어리테크 대표, 박하연 에임인텔리전스 CTO, 이재호 옵트에이아이 대표.

/LG유플러스

는 행사로, MWC가 열리는 피라 그란비아(Fira Gran Via) 8홀에서 진행된다.

이들 스타트업은 MWC26 기간 동안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와의 미팅을 통해 기술 협력과 사업 연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항공권, 숙박

비, 부스 임차료 등 현장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스타트업들이 전시와 미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4YFN에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에임인텔리전스, 인헨스, 옵트에이아이, 사이퍼데이터, 페어리테크, ICTK, 포트투마루, IHFB, 튜링, 그로비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LG유플러스와 협업 중이며, 이 중 5곳은 AI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쉬프트(Shift)’에 참여해 기술·사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AI 스타트업과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쉬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 협력과 투자,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쉬프트 참여 기업 가운데 에임인텔리전스, 인헨스, 옵트에이아이는 4YFN 참가 스타트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4YFN 어워즈 TOP 20’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YFN 어워즈는 디지털 전환, 헬스테크, 클라이밋테크, 핀테크, 모바일 프론티어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낸 상위 20개 기업을 선정해, MWC 기간 중 최종 우수 기업과 우수 기업을 발표하는 행사다. 올해 톱 20에는 스페인, 영국, 한국 기업이 포함됐으며, 한국 기업 3곳 모두 LG유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WC26 4YFN 참가를 계기로 쉬프트 프로그램과 연계한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공동 펀드 조성 등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생태계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카톡 ‘에이전트 AI’로 실행형 AI 전략 본격화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에 ‘에이전트 AI’를 적용해 이용자 맞춤형 추천과 예약 기능을 고도화한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행동까지 수행하는 ‘실행형 AI’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번 기능은 대화 맥락을 분석해 식당·공연·여행 상품 등을 추천하고, 외부 서비스와 연동해 예약과 결제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모빌리티·콘텐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기반 대형언어모델을 병행해 응답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한다.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전제로 개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빛나 기자

LG CNS-오픈 AI, 국내 기업용 AX 공략

‘챗GPT 엔터프라이즈’ 운영 지원

LG CNS가 오픈AI의 기술을 활용해 국내 기업용 AX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 CNS는 최근 오픈AI와 ‘리셀러 파트너’ 및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구현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 CNS는 국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용 챗GPT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도입, 활용,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한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 민감한 업무도 비교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내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 업무 활용도가 높고, 대용

량 문서나 복잡한 자료를 업로드해도 결과물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 개인용 챗GPT 이용 경험에 있는 사용자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어, 기업 내 도입 검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AI가 발표한 ‘기업용 AI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대화량은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되는 추론 관련 토큰 소비는 약 320배 늘어, 기업들이 AI를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핵심 업무 영역으로 확장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G CNS는 보안 기능과 고난도 업무 처리 역량을 갖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오픈AI 론치 센터’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LG CNS의 AI 엔지니어, AI 아키텍트, AI 컨설턴트로 구성되며, 오픈



LG CNS본사 전경.

/LG CNS

AI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컨설팅, 기술 지원, 구축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AI 도입 단계에 맞춰 실제 업무 적용과 조직 확산을 지원하는 워크숍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LG CNS는 금융, 제조, 공공,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와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AX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산업 특성에 맞춘 AI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구글 안드로이드 XR 기반 ‘얼굴 위 AI 시대’ 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확장현실(XR)’ 기반의 인공지능(AI) 클래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격 공개했다.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폼팩터로 꼽히는 XR 기기를 통해 ‘얼굴 위 AI’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새 UI는 시선 추적, 음성 명령, 제스처 인식을 결합한 멀티모달 구조를 채택했다. 메시지 확인, 길 안내, 실시간 번역, 콘텐츠 시청 등을 시야 내 오버레이 방식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대체하기보다 확장하는 형태다.

안드로이드 XR은 개발자 생태계 확장을 염두에 둔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기존 안드로이드 앱과의 연동성을 높여 초기 콘텐츠 부족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